

#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옥수수

지난 '84년도 세계농업의 풍작으로 인해 옥수수생산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옥수수시세는 지난해 연말이래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낮은 옥수수시세는 3월중순에 들어서면서 소폭의 강세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직도 C&F 톤당가격은 140불 미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최근의 가격상승을 가져온 주요요인을 보면 아르헨티나 엘레베이터 폭발로 인한 소련의 구매선 변경을 들 수가 있다.

3월13일 대폭발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엘레베이터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일의 5만톤 파나막스선박이 접안 가능한 엘레베이터로 이 폭발로 인해 소련이 아르헨티나에서 구매할 예정이던 100~150만톤가량의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시카고옥수수시세는 다소 강세를 보였으나 다시 140불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옥수수시세가 큰폭의 상승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US달러의 지속적인 강세현상과 미국 옥수수의 수출부진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연말이래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는 US달러가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입국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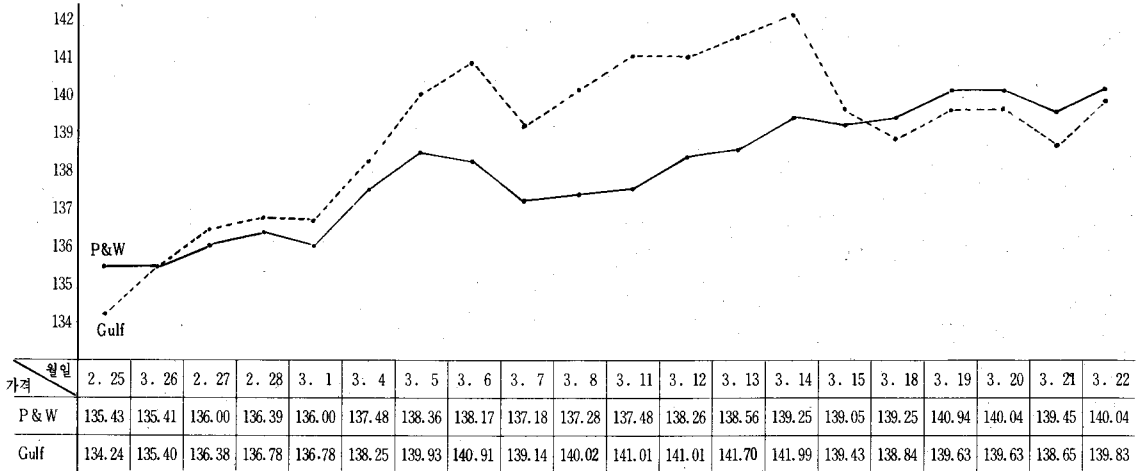
화폐가치가 하락되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켰고, 최근에는 수입국들의 사료곡종의 다양화와 신흥수출국의 출현 등으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옥수수생산량은 총 4억4천5백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7.3%나 크게 늘어났고 미국의 경우는 지난 83년에 비해 83.5%의 엄청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47.7%, 아르헨티나가 15.8%, 태국이 12.5%, 캐나다가 18.6%씩 각각 늘어났다.

이와같이 세계곡물시장의 수급동향이 수입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대출국인 미국로서는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되어 왔다. 즉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과거 수입국이던 중공이 수출국으로 변신했는가 하면 가격면에서도 10불이상의 차이를 두고 미국산 옥수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제곡물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그동안 보호주의의 농정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신농업조정법안(Farm bill)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과거 미국의 시장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보조제도를 철회하고 점차 곡물가격을

## 1. 옥수수 시세



하향 조절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가격안정을 예견할 수도 있으나, 수입국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곡물수급상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길 경우 가격상승요인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싼 가격으로 공급되어오던 중공산 옥수수도 최근 수요과열 등으로 인해 가격상승현상을 보이고 있고 선적지연 등으로 인해 점차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

질의 대두수확이 강우예상 등으로 인해 순조롭지 못했던 점과 구매수요가 근래들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금년도 미국의 대두생산이 지난해보다 13.8% 가량이 증가했고 브라질도 3.3%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기타 곡물

## 대두 · 대두박

한편 미국산대두와 대두박시세 역시 지속적인 US달러의 강세 등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시세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난 2월25일 기준으로 C&F 톤당 244불을 보이던 미국산 옥수수시세가 최근 3월22일 현재 258불선을 나타내고 있고 대두박 역시 2월25일에는 168불선이었으나 최근에는 181불로 크게 상승했다.

이와같이 대두시세가 강세를 보인 것은 브라

질의 옥수수와 대두 등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온 반면 기타곡물시세는 비교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수의 경우 미국산이 125불선을 보이고 있고 한때 120불선까지 내려갔던 호주산 사료용소맥이 재고부족 등으로 인해 128불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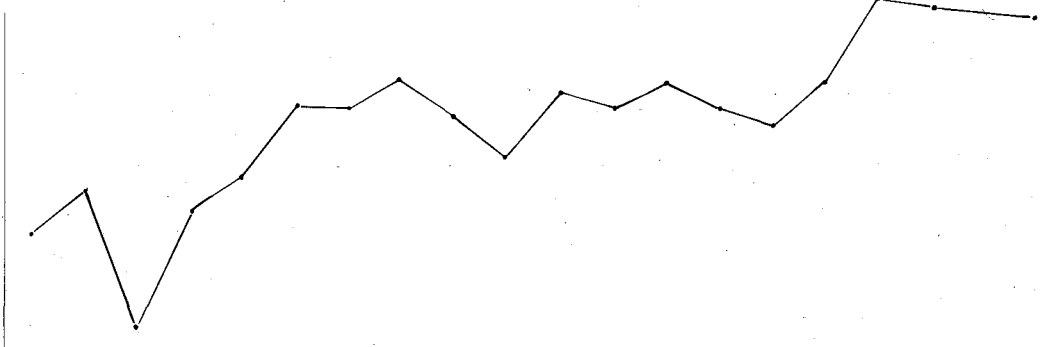
호밀도 마찬가지로 110불선을 훨씬 넘어섰고 앞으로 낮아질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곡물시세가 이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타곡물생산국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 2. 대두박 시세

(C&F \$/TON)

180  
178  
176  
174  
172  
170  
168  
166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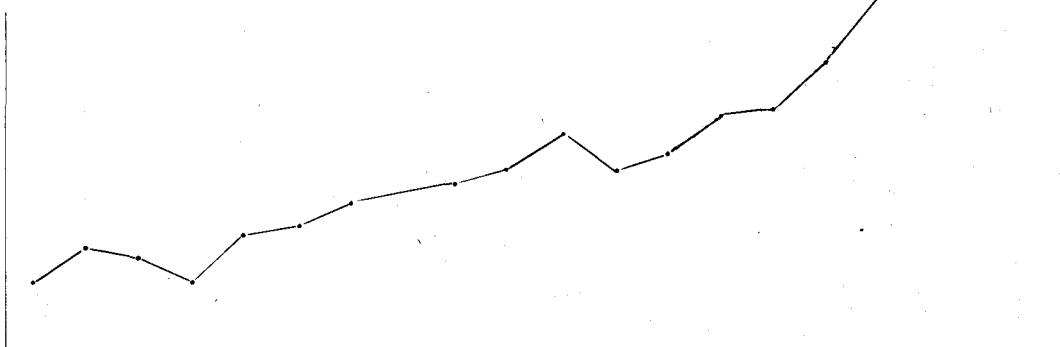


월 일	2. 25	2. 26	2. 27	2. 28	3. 1	3. 4	3. 5	3. 6	3. 7	3. 8	3. 11	3. 12	3. 13	3. 14	3. 15	3. 18	3. 19	3. 20	3. 21	3. 22
가 격	168.22	170.42	163.59	169.76	171.64	175.06	174.83	176.49	174.39	172.30	175.94	174.94	176.27	175.06	173.95	176.38	182.00	181.56	183.10	181.45

## 3. 대두 시세

(C&F \$/TON)

258  
246  
254  
252  
250  
248  
246  
244  
242



월 일	3. 25	2. 26	2. 27	2. 28	3. 1	3. 4	3. 5	3. 6	3. 7	3. 8	3. 11	3. 12	3. 13	3. 14	3. 15	3. 18	3. 19	3. 20	3. 21	3. 22
가 격	243.84	245.59	245.03	243.75	246.23	246.50	247.97	245.59	248.62	249.81	251.65	249.63	250.36	252.38	252.84	255.69	259.82	257.99	257.62	257.62

않고 있는 점과 근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사료곡물수입국들이 과거 옥수수에만 의존해오던 것을 점차 다양화시켜 타곡류 사용을 늘려가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수수, 소맥, 호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태국산 타피오카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상적인 타피오카 하드펠렛의 시장가격은 C&F 톤당 80불을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제시되고 있는 가격은 60불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태국내의 과잉재고 탓도 있지만 EC지역에 대한 500만톤 수출제한과 이에따른 신시장개척에 따른 특혜 제도의 도입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타피오카시세는 태국내에서 특별한 제도개혁이 없는한 EC가격에 비해 훨씬 싼 가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가격도 C&F 톤당 100불미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